

01 교회소식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105번째 한국어 저서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이 교보문고 종교부문 주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화제다.

02 생명의 말씀

인자의 삶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2)

하나님 말씀을 잘 양식 삼으려면 성령의 감동함으로 깨달을 뿐 아니라 불같은 기도로 은혜와 능력을 받아 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03 기획특집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일변하여 이를 위해 담대히 나아간 성경 인물들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04 간증

“열방은 네 빛으로… 나아오리라”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한 콩고민주공화국 까부뚜 총회장과 창립 34주년의 축복을 되새겨 보는 조현숙 권사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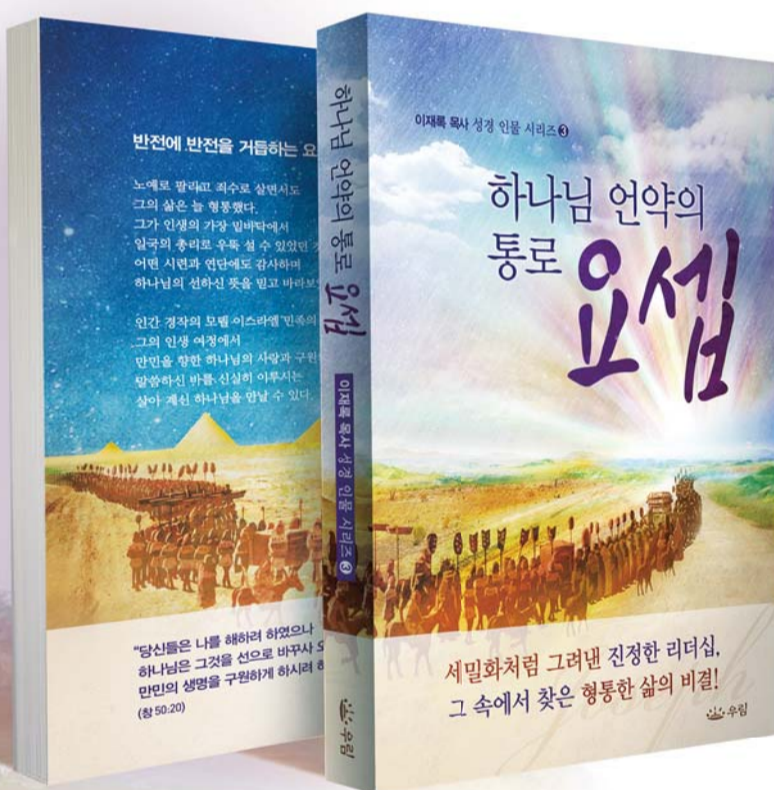
# 만민뉴스

제760호 2016년 10월 23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종합 주간 베스트셀러 종교부문 1위에 올라

### 진정한 리더십을 일깨워 주는 <이재록 목사 성경 인물 시리즈 3>

###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요셉의 인생!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허락된 험통한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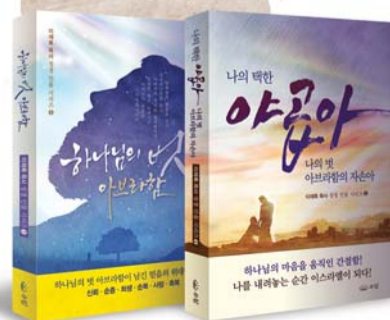
#### 이재록 목사 성경 인물 시리즈 1, 2

#####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의 벗이 되기까지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지는 아브라함의 생애!

#####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삶 속에 녹아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105번째 저서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이 판매 19일 만에 국내 최대서점인 교보문고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종합, 종교부문 주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이 책은 인류 구속사의 거대한 맥을 짚어 나가며 하나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보여 주는 성경 인물서로, 이재록 목사 성경 인물 시리즈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에 이어 세 번째 발간된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세운 요셉의 생애를 세밀하게 담아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거대한 역사 속에서 17세 소년 요셉이 노예 신분에서 일국의 총리가 되는 인생 대역전이 펼쳐진다. 13년간의 연단 속에 노예로 팔리고 죄수로 살면서도 그가 범사에 험통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감동시키는 ‘진정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 신분으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애굽 전역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의 인생 여정에서 무궁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이재록 목사가 깊은 기도 속에 받아 내린 영감으로 요셉의 신앙과 선을 심도 있게 다뤘기에 크리스천은 물론, 범사에 험통한 삶의 지혜를 사모하는 이들의 필독서라 할 수 있다.

전자책으로도 발간되어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반디 앤 루니스, 리디북스, 인터파크, 구글북스, 아이북스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과 험통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깨달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

#### ◆ 독자 후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선의 지혜 속에 전개되는 요셉의 삶은 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감탄하며 감동 속에 빨려 들어가 읽게 한다.”  
(교사 김인자)

“바로와 신하들, 집에서 일하는 시종들의 마음까지 헤아려 상대의 유익을 구해 주는 요셉의 행함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갈등 속에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훌륭한 교본이 된다.”  
(방송인 이성익)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53~55)

#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2)

할 때에도 입술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면서 마음에 양식 삼아야 합니다. 예컨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는 말씀을 마음에 양식 삼았다면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가 악을 행하며 자신을 핍박할 때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우러나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오히려 상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인자의 살을 먹고 머리에 지식으로만 담았다면 감정이 상하고 상대가 미워지며 악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양식 삼는 사람은 사랑과 온유로 심으니 미움과 열기가 빠져나가고, 겸손으로 심으니 교만이 빠져나가 점차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 2. 인자의 피를 마시는 행함이 병행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식 삼으려면 성령의 감동함으로 깨달을 뿐 아니라 불같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행함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키라”, “버리라”, “하라”, “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고 지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씀한 대로 믿음으로 행함을 나타내야 지식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온전히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행함

으로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함으로 날로 믿음이 성장하여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됩니다(엡 4:13).

반면에 성령을 받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없고 마음이 변화되기도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작은 믿음조차 빼앗겨 구원과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인자의 피를 마시는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바랍니다.

## 3. 구원과 영생, 응답과 축복이 임하려면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말씀을 진정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를 것입니다. 만약 믿을만한 사람이 서울에서부터 걸어서 부산에 있는 어느 바닷가에 가면 수억 원어치의 보물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시다. 진정 보물을 취하고 싶다면 걸어서라도 부산의 바닷가에 갈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입술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마음에는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행함 있는 믿음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영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구원을 받고, 응답과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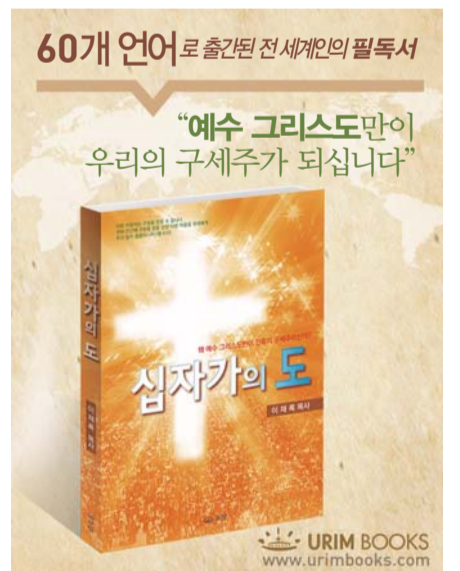
혹자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아무리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한량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으므로 앞뒤의 문맥을 살펴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풀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한 대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사람이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녕 마음에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 행함 있는 영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만사형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을 유지하려면 양식을 먹으며 동시에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물을 마셔야 소화, 흡수되고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소가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인자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셔야 영생할 수 있을까요? 지난 호에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 1. 인자의 살을 먹고 마음에 양식 삼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인자의 살을 먹어서 온전히 양식을 삼으려면 반드시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입어서 지식으로 쌓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양식 삼아 마음에 온전히 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양식을 삼는다는 것과 지식으로만 담는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머리에 기억된 것은 잊어버릴 수 있고 진리를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암송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교회 요시는 길**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삶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후 새롭게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참된 가치를 소유하기 바란다.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 '사도 바울'

바울은 본래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다. 대제국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나 당대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제자로 수학했다. 자부심과 자존심이 대단했던 그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변론하여 이기는 것을 좋아했으며 자신이 보기에 옳지 않은 일은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겼다(빌 3:7~9). 부와 명예,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모진 핍박과 고난도 달게 받았으며, 마침내 순교에 이르렀다(행 20:24).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천국을 마음에 소유했기 때문이다. 셋째 하늘의 낙원(고후 12:2~4)을 본 것만으로도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기기에 충분했고,

어떠한 고난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후 11:23~28).



세상에서는 아무리 귀한 것도 세월이 지나면 그 가치가 변한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으며, 믿음이 성장하고 마음에 선을 이룰수록 그 가치는 점점 커진다.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좇지 않고(전 1:2) 영원한 것을 목표 삼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행복,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 주님의 마음을 닦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천군천사가 함께하니 부족할 것이 없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니 삶의 목표만 뚜렷하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마 6:31~32, 7:7~11).

참된 가치를 깨달아 두려움이 없었던 '니고데모와 초대교회 성도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거듭님과 영생의 비밀을 들었다(요 3:1~21). 두려움이 있었기에 남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갑갑하게 구하던 진리를 얻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달은 후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변호하여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는 것을 볼 수 있다(요 7:50~51).

십자가 사건 후에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다.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옳은 것을 '옳다'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것이다.

초대교회의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주님의 부활 이후 로마 제국의 교회에는 혹독한 박해가 있었다. 오직 주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수한 핍박을 받아야 했고 온갖 악형들로 죽임을 당했다. 순교자들 중에는 귀족장교나 부유한 귀부인, 가난한 농부와 노예도 있었다. 건장한 청년도 있었고 연약한 노인이나 어린

소녀들도 있었다. 이들은 서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며 사나운 맹수 앞에 설 때도 찬양하며 평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두려움 없이 순교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로마제국은 기독교를 공인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었다.



천국 소망과 참사랑이 있으면 힘없는 어린아이나 연약한 여인들이라 해도 두려움이 없지만, 이 세상의 욕심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은 건장한 장정이라도 담대함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천국의 영광을 믿는다면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 하여 염려하거나 세상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무엇이나 담대히 행할 수 있는 것이다(요일 4:18). 또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혹여 자신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깨닫는다 해도 금세 돌이켜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범사에 겸손하고 항상 상대의 유익을 구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자같이 담대히 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드리는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 3~13절에 나오는 두 증인은 장차 7년 환난 중에 놀라운 권능을 행하므로 모든 사람이 그들을 두려워하지만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에게 잡혀 순교하게 된다. 곧 두 증인은 참된 가치를 앞으로 '깨달을' 사람들인 것이다.

원래 유대교의 신봉자였던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이 참인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참인지 갈등이 끊이지 않던 중 7년 환난이 다가오는 어느 때, 참된 가치를 깨닫고 주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드리기로 결단한다. 이후 7년 환난 중에 외롭게 남겨질 때도, 적그리스도 세력의 핍박에도 사명에 대한 열정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천국에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 죄 없이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후 부활 승천하셨다. 그리고 가장 귀한 천국의 영광을 약속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보내 주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천국이 가득해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던 사랑의 말, 주님의 마음을 닦아 꼭 성결되겠다고 다짐했던 간절한 약속, 뜨겁게 타올랐던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소망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는 감격의 순간에 "정녕 후회 없는 삶을 살았나이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6. 10.23~ 10.29

###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3차 영혼육 12-14
- 3차 천국 37-42
- 십자가의 도 18-22
- 지옥 17
- 요한일서 강해 1-6
- 위로부터 난 지혜 1~3
- 요한계시록 강해 95-103
-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1-4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1-14

### GCN TV설교

- 팔복 14 (이수진 목사)
- 영의 세계 47 (이희선 목사)
- 믿음의 분량 1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19 (정구영 목사)
- 위로부터 난 지혜 4 (김수정 목사)
-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주현권 목사)
- 진리에 목마른 자(교경아 전도사)

### 해외성회 및 신규 프로그램

- 마지막 때 2
- 권능 스페셜 7
- 말씀 스페셜 7
- 뉴욕 연합대성회 3
- 믿음으로 걸어온 길 41
- 회상 3

###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보기) 4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51
- 내 마음의 찬양 40
- English 10
- 창조와 과학 7
- 모두 드려요 48

GCN HD 채널 kt o!leh tv 882번



# “성결의 복음이야말로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까부뚜 니심비루에 비리지 총회장**  
(콩고민주공화국 베사이다 교단)

저는 키부주목회자 협회 회장이자 고마대학교 교수, 베사이다 교단의 총회장입니다.

561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으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무한도 장로님을 통해 만민중앙교회에서 성경 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창립 15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해 담임 정명호 목사님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권능의 사역과 성결의 복음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임을 확신했지요. 이 목사님의 저서 『십자가의 도』, 『나의 삶 나의 신앙』, 『믿음의 분량』을 읽으면서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복음의 핵심이 마음의 성결이라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역사가 활발히 나타나는 만민과 함께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6년 6월에 정명호 목사님을 초청하여 고마 도시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7월에는 저희 산하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동의하여 만민 지교회로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만민 베사이다 성경 대학’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명호 목사님과 함께 고마, 부까부, 유비라, 바라까 등 콩고 동부지역에 있는 5개의 센터에서 성경 대학 개강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콩고, 케냐, 우간다에서 800여 명의 신학생들이 등록하여 성결의 복음과 여러 프로그램들로 가르침받기를 사모하고 있지요.

10월 초, 이재록 목사님을 직접 뵙고자 만민중앙교회 창립 34주년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참으로 대형교회임을 실감할 수 있었고, 공연도 매우 은혜로워 마치 천국의 가장 좋은 처소인 새 예루살렘 성의 실재를 보는 것 같았지요. 영적인 깊이를 담고 있으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수준 높은 공연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재록 목사님을 직접 보니 너무나 감동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과 교통하심으로 권능을 행하시는데도 너무나 겸손하신 모습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기도의 삶을 배우고자 합니다. 참된 영적 승을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교단을 받아주시고 성경 대학을 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창립 34주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에 행복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창립 34주년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날씨 하나만 보더라도 창립주일 닷새 전인 10월 4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9도를 기록하며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차츰 기온이 떨어져 8일 토요일에는 최고 기온이 21.8도가 되었지요. 교회적으로 큰 행사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최적의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비를 내려 깨끗하게 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선교회 회원들은 토요일 아침부터 청명한 최상의 날씨 속에서 맛있는 부침개를 부치며 봉사할 수 있었고, 시종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완성된 부침개를 식혀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조절해 주시는 날씨를 보며 주인의 마음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성전 청소, 음식 준비 등을 흥통하게 마칠 수 있었지요.

10월 9일, 창립주일 일기예보는 낮 최고기온 17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져 쌀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주변은 바람이 잦아들고 맑은 날씨 가운데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어 앞마당에서 식사하는 성도들에게 23~24도의 안성맞춤 날씨였습니다.

또한 해외 손님들을 접대하며 그분들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

서 만민의 양 떼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프리카와 이집트에서 오신 총회장님들은 사랑스럽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면서 당회장님을 매우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국 영적외교단체 회장 미하일 모글리스 박사님은 미국에 상륙한 3등급 허리케인 매튜를 위해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10월 8일 새벽 전야행사 때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자 급속히 1등급으로 약화되었고, 그 후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되었지요.

이 밖에도 해외 손님들이 다니엘철야 기도회와 각종 예배 등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칭찬하시니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바른 가르침으로 양육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열매가 가득 넘치는 제단, 만민의 이름으로 펼쳐질 끝없는 영광을 실감하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조현숙 권사**  
(여선교회총연합회 회장)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자책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6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41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령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를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암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시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딩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